

2021년 제5차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동산문화재분과)

◆ 일시 : 2021 8. 20.(금) 10:00 ~ 12:10

◆ 참석자 (12명)

위원장 : ○○○

위 원 : ○○○, ○○○, ○○○, ○○○, ○○○, ○○○, ○○○,
○○○, ○○○, ○○○, ○○○

관계전문가 : ○○○

배석자 : ○○○ 과장, ○○○ 팀장, ○○○ 주무관

◆ 심의안건 (총 21건)

- 서울시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심의·검토 : 1건
- 국가 등록문화재 사전 심의 : 7건
- 국가 지정문화재 사전 심의 : 2건
- 서울시 지정문화재 사전 심의 : 11건

(개회)

○ ○○○ 팀장

6월 문화재위원회를 시작한 이후로 오늘 처음으로 문화재위원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 과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 문화재과장

반갑습니다. 제가 7월 19일자로 역사문화재과장으로 발령받아 왔는데요. 예전부터 저는 역사문화 쪽에 관심은 되게 많았지만 이렇게 부서로 발령받아서 근무하게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일단 발령을 받아서 아주 좋고요. 이렇게 위원님들 만나 뵙게 돼서 되게 반갑고 앞으로 문화재위원회 동산분과 활동을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 ○○○ 위원장

지금부터 2021년도 제5차 문화재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이 상당히 많은데요. 먼저 현상변경 건이 한 건이 있습니다. 금선사 신중도 보존처리 및 모사도를 하는 거죠. 사업관계자께서 나오셨으니까 먼저 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관계자 입장)

■ 서울시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심의·검토

□ <금선사 신중도 영인본 제작 및 보존처리 용역 승인 심의>

○ 사업관계자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금선사 신중도 영인본 제작 및 보존처리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사업개요, 조직구성, 보존처리 계획, 예정공정표입니다. 이번 사업은 유물의 원형 보존 및 영인본 제작을 목적으로 하여 11월 24일에 완료 예정입니다. 조직구성입니다. 보존처리는 문화재수리자격증 보유자로 구성하였으며 영인본과 제련은 전문인력을 통해 제작할 것입니다. 보존처리의 전반적인 계획입니다. 가장 먼저 상태조사 및 과학적 분석을 진행하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보존처리 방향을 정합니다. 보존처리는 해체 세척 및 표면안정화, 구배접지 제거 및 배접, 결손부 보강 및 색맞춤, 틀 제작 및 보강, 장황순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영인본은 영인본과 동일하게 장황하여 마무리할 것입니다. 처리 대상 유물은 금선사 신중도로 1887년에 제작되었으며 현재 액자로 형태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손상상태는 현재 육안조사 결과 결손, 균열, 오염, 박락 등이 확인되며 이전 수리 흔적도 있습니다. 해체 후 과학적 분석으로 색차값 측정, 안료 분석, 현미경 분석, 적외선 촬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건식세척 후 안료안정화 작업을 진행합니다. 다음은 습식세척 및 구배접지 제거입니다. 구배접지는 초배지에 초가 그려져 있거나 채색 등이 있는 경우 제거하지 않고 자문회의를 통해 처리방안을 논의합니다. 다음은 배접지 및 건조입니다. 총 3차 이상 배접할 예정이며 1차 배접 후 꺾임방지띠로 균열부를 보강해줍니다. 결손부는 바탕과 유사한 강도의 면섬유를 열화하여 사용할 것입니다. 틀은 결구법으로 견고하게 제작하고 한지로 보강한 후 화분을 부착합니다. 마지막으로 장황 형태는 자문회의를 통하여 논의된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예정공정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 위원장

지금 간략히 발표를 하셨는데요. 제석천룡탱화입니다. 사업은 세 가지예요. 보존처리하고 영인본 제작으로 걸으려는 두 가지이지만 보고서까지 세 개를 해야 하는 케이스입니다. 이 문화재에 대해서 전문가이신 선생님 들께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

아까 제가 잘 못 봤는데 연대는 언제입니까? 제작 연대가 있습니까?

○ ○○○ 위원장

제작연대는 1887년이고요. 서울시 문화재 지정은 2002년 12월 26일입니다.

○ ○○○ 위원

손상 상태가 아까 보니까 훼손된 것들이 좀 있기는 한데 색채 박락 같은 것은 잘 안 보여서요. 손상이 아까 훼손된 되가 한 군데 보였는데 채색 박락 정도는 어떤가 해서요. 안료 박락이 많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안료가 그대로 잘 남아있는지.

○ 사업관계자

네. 훼손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커요. 박락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 안귀숙 위원장

회의 자료를 보시면 원래 가로 세로 접었던 그림 같아요. 그랬던 것을 액자로 꾸민 것 같습니다.

○ 사업관계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게 벽에 걸려 있었는데 너무 훼손되다 보니까 가예를 커트를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가 쪽이 다 날아간 부분이에요. 너무 안타깝게도 잘려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의 작품만 가지고서 했는데 그 안의 작품도 보관상태가 안 좋아서 너무나 박락이 심하고

열화가 많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 ○○○ 위원

결손이 굉장히 많이 된 것 같은데 보강을 하는 게 지금 계획서상으로는 바탕재와 유사한 것으로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어떤 유사한 겁니까? 똑같은 직물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것을 그냥 바로 붙인다고 하셨는데 붙이는 것인지 아니면 섬유끼리 연결을 짓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사업관계자

그것은 작품을 다시 뒤에 배접지를 제거하게 되면 지금은 갈라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서로 압축을 시키면 갈라진 부분이 맞아질 겁니다. 맞아지는 부분으로 저희가 최대한 간격을 좁혀서 처리할 방안입니다.

○ ○○○ 위원

결손부위 같은 경우 지금 같은 재질의 천을 사용해서 이렇게 붙여야 하잖아요. 지금 이런 데 사진을 보면 그런 부분들은 아까 계획서상에는 좀 비슷하게 열화시켜서 이렇게 붙인다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할 것 아닌가요?

○ 사업관계자

네. 그 천을 최대한 맞는 것을 구해서 열화시켜서 직물하고 같이 거기에 메움을 할 것입니다.

○ ○○○ 위원

그리고 화면 가장자리들이 많이 잘려 있잖아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에는 안 나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주변을 같은 천으로 결손부 복원하듯이 할 계획은 없으신 거죠?

○ 사업관계자

네. 그것은 자문회의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늘릴 수 있으면 늘리고 그냥 그 상태로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 ○○○ 위원

지금 거기 인력 구성을 보면 영인본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직접 할 수 없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어디에 맡기실지 결정은 하셨는지?

○ 사업관계자

네. 저희하고 MOU 되어 있는 데가 대전의 큰 회사가 있습니다. ○○이라고.

○ ○○○ 위원

그리고 영인본 할 때 당연히 그렇겠지만 보존처리 완료한 후에 영인본 제작할 계획이시죠?

○ 사업관계자

네. 그렇습니다.

○ ○○○ 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계획서를 봤는데 그 계획대로 진행하면 큰 무리 없이 진행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 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말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 사업관계자

감사합니다.

○ 안귀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업관계자 퇴장)

○ ○○○ 위원장

그러면 별 말씀이 없으시면 훼손이 심하니까 시급한 보존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원안 가결 할까요?

(“예.”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서울시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금선사 신중도는 원안가결 하겠습니다. 원안가결하고 앞으로 자문위원은 아무래도 문화재위원 최소 한 분 이상으로 되어 있으니 제 생각에는 ○○○ 위원님, ○○○ 위원님, ○○○ 위원님 세 분 중에 시간이 되시는 분, 담당자인 ○○○ 주무관님하고 의논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 등록문화재 사전 심의

다음으로 국가등록문화재 사전 심의 건인데요. 7건입니다. 그런데 모두 복식이고 소장자는 ○○○이고 ○○○○○○○ 유물들이에요. 그래서 이 7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신 ○○○ 선생님께서 나와 계시거든요. ○○○ 선생님께서 하나씩 말씀하시고 한 건씩 결론짓고 가겠습니다.

□ <누비 양장 스타일 남성 바지>

○ ○○○ 관계전문가

안녕하세요? 첫 번째 건은 누비 양장 스타일 남성 바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비바지이고요. 1991년에 윤치호의 유품을 기증 받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형태는 완전히 서양복 바지이고요. 옷감을 한복 누비감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소재는 인조견에 솜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화면을 통해) 기증경위를 보셨고요. 그런데 착용하셨던 분께서 친일활동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형태는 그야말로 그 당시에 착용되었던 전형적인 서양복 남자 바지 형태이고요. 문화재의 보존상태는 아주 훌륭합니다. 1930~1940년대의 서양복 바지 형태를 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기는 한데 착용자를 생각했을 때 아마도 국가 등록문화재로 신청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 위원장

예. ○○○ 관계전문가님 말씀은 국가 등록문화재는 조금 미흡하다는 의

견을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 ○○○ 위원

착용자의 문제 말고 옷 자체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 ○○○ 관계전문가

옷 자체로 봤을 때는 그 당시의 서양 남자바지에 한국의 소재를 사용했다. 그런 정도의 의미는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 위원

네.

○ ○○○ 위원장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조사자 의견을 따를까요?

(“예.”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이것도 불가로 하겠습니다. 부결로 하겠습니다.

□ <武運長久가 새겨진 천인침(千人針) 조끼와 일장기 및 적색 띠>

다음은 무운장구가 새겨진 천인침 조끼와 일장기 및 적색 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관계전문가

2013년에 故 ○○○으로부터 부친인 故 ○○○ 님의 유품을 기증받은 것입니다. 조끼, 일장기, 적색 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938년 이후 그리고 징병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그 당시에 이런 조끼 형태로 만들어진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착용자가 확실하고 시기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을 잘 보여주는 유품으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 등록문화재로 신청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 위원장
예. 의견 주십시오.

○ ○○○ 위원
이러한 형태의 옷이 현재 많이 남아 있습니까?

○ ○○○ 관계전문가
조끼 형태는 소개된 바가 없습니다.

○ ○○○ 위원
저는 조사자 의견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다수)

○ ○○○ 위원장
예. 혹시 ○○○ 위원님 의견 없으실까요? 이 문화재는 일본 군국주의 동원 체제를 볼 수 있는 유물이어서 국가 등록문화재로 올려보겠습니다. 그래서 가결입니다.

○ ○○○ 위원
네.

<공덕귀 여사 슈트>

○ ○○○ 위원장
다음은 윤보선 전 대통령의 부인이신 공덕귀 여사 슈트입니다. ○ 선생님, 소개해 주십시오.

○ ○○○ 관계전문가
네. 공덕귀 여사 슈트는 이 역시 개인적으로 소장자께서 기증을 받으신 것입니다. 반소매 슈트로 위아래 치마와 상의가 한 벌인 여성용 정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950년대에 유행했던 그 당시의 사회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당시 나름 최초로 문을 열었다고 알려져 있는 한 양정점에서 주문제작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 착용되었던 양장이 형태가 온전히 남아있는 것은 거의 없는데 그리고 유행과 더불어서 소재까지 해석할 수 있는 자료로서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 ○○○ 위원장

30년 정도 입으셨던 옷인가 봐요. 이것에 대한 질의가 있으실까요?

○ ○○○ 위원

등록문화재 기한도 50년이 넘었고 공덕귀 여사가 입으셨다는 것이 확실하면 등록문화재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사자 선생님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다수)

○ ○○○ 위원장

명칭 문제인데요. 앞에 ‘영부인’이라든지 ‘공덕귀 여사’를 붙인다든지 아니면 띄고 ‘공덕귀 여사 슈트’라든지. 조사자는 이렇게 붙이셨는데 그다음 안건이 ‘미스코리아 오현주 수영복’이에요. 그래서 사람 이름만 앞으로 나오느냐, 앞에 무슨 명칭을 고치느냐 이것을 함께 고민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 건에 대해서는 조사자 의견대로 ‘공덕귀 여사 슈트’라고 할까요?

○ ○○○ 위원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 ○○○ 위원

위원장님, 혹시 계속 이렇게 영어식 명칭을 써야 하나요? 슈트, 드레스 이렇게 해야 하는지. 그래도 국가 등록문화재인데, 한글용어로 바꿔서 쓸 수는 없는지 여쭙습니다.

○ ○○○ 위원

양장이라든가.

○ ○○○ 위원

그런데 양장 중에 또 슈트는 한 벌이니까 슈트가 제일 정확한 의미일 것 같기는 한데요.

○ ○○○ 위원

그런데 이 경우도 국가로 가면 다시 심의하지 않을까요?

○ ○○○ 팀장

국가로 가면 다시 검토할 겁니다.

○ ○○○ 위원장

지금 말씀이 아무래도 우리가 이렇게 올리면 국가에서 다시 한 번 조사가 나오니까 이것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지 않게 조사자 의견대로 ‘공덕귀 여사 슈트’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가결입니다.

○ ○○○ 위원

위원장님, 명칭이 바뀌면 의견을 달아서 조건부 가결로 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 ○○○ 위원

지금은 안 바꿨으니까 상관이 없는 거죠.

○ ○○○ 위원장

예. 국가로 올리기 때문에 가결인지 부결인지 그것만 결정하면 됩니다.

○ ○○○ 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스코리아 오현주 수영복>

○ ○○○ 위원장

다음은 미스코리아 오현주 수영복입니다. 소개해 주십시오.

○ ○○○ 관계전문가

미스코리아 오현주 이분께서 기증을 하신 수영복입니다. 1959년 미스유니버스 대회에 참가할 때 입었던 옷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참가할 때 입었던 옷 중에 현재 문화재로 지정된 드레스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착용되었던 수영복으로 현존하는 유물이 없습니다. 미제이고요. 카탈리나사에서 제조한 수영복이라는 것이 두드러지게 보이는데 현재 우리나라에는 착용되었던 수영복 유물이 없고 그리고 그 당시 상황이 매우 잘 보이는 유물이기 때문에, 특징 및 평가를 보시면 지정된 수영복으로는 새미 리 (Sammy Lee) 수영복이 있고요. 사진을 보시면 보존상태는 훌륭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 ○○○ 위원장

이 수영복은 오현주가 입었던 것으로 미스유니버스에 나간 거죠. 미국에서 만든 것이지만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영복도 이렇게 오래 된 것은 한 점 있고 이게 두 번째라서요. 입었던 착용자 또 연대, 제작사 이런 것이 다 분명하기 때문에 국가 등록문화재로 올려도 가능하겠다고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다른 분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 ○○○ 위원

조사 자료에 미스코리아가 된 연도와 출전한 연도 등등 '15', '16' 이런 것에 계속 연도 표시가 조금씩 잘못되어 있거든요. '18○○년'이라고 했다가, 이게 조금 혼란스러운데요.

○ ○○○ 관계전문가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 ○○○ 위원

그러면 1959년 미스코리아가 1959년 미스유니버스에 나간 게 맞는 거죠?

○ ○○○ 관계전문가

1959년 미스코리아가 1959년 미스유니버스에 나간 겁니다.

○ ○○○ 위원

이 옷의 생산지는 미국이네요?

○ ○○○ 관계전문가

네. 그렇습니다.

○ ○○○ 위원장

예. 국가 등록문화재로 상신하는 게 가능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세요?

○ ○○○ 위원

이런 비슷한 예가 있을까요?

○ ○○○ 관계전문가

수영복은 새미 리(Sammy Lee) 수영복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현주 이분께서 미스유니버스 참가하실 때 착용했던 드레스는 이미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 위원장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차피 우리가 올리면 문화재청에서 재조사를 하는데 서울시에서 부끄럽지 않을 정도의 것이면 되도록 올려서 하는 것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 ○○○ 위원

아까 드레스가 한 점 있다고 했는데 그것도 오현주 것입니까?

○ ○○○ 관계전문가

네. 그분이 대회에 참가하실 때 입었던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세 점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 ○○○ 위원

세 점이 다 따로 따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 ○○○ 관계전문가
2건에 3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 ○○○ 위원
그러면 이것도 혹시 그 같은 해에 참석이 됐다면 건수를 하나 늘리는 식으로 하는 것은 어떨까요? 같은 사람이 같은 대회 때 입었던 것이라면요.

- ○○○ 위원
그런데 이것은 미스유니버스 때 입었던 것이라 조금 다르죠.

- ○○○ 위원
아, 다음 안건의 드레스는 미스코리아 대회 때 입었던 거예요?

- ○○○ 관계전문가
이것도 미스유니버스 때 입었던 게 맞습니다.

- ○○○ 주무관
다음 안건의 사진 중 참고자료로 넣어주신 것은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겁니다.

- ○○○ 위원장
그것은 노라노 작품이라 등록되어 있는 거죠. 이 수영복은 가결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다수)

그다음에 역시 오현주가 입었던 플레어 드레스입니다. 간략히 소개해 주십시오.

- <1959년 미스코리아 진 오현주의 플레어 드레스>

- ○○○ 관계전문가

네. 1960년대에 제작되었고 패션쇼에, 특히 강조하셨던 부분이 한일친선 행사 때 입혀져서 많이 소개되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이게 행사 한 가지만 있었던 게 아니라, 유니버스 대회에 참가하셨을 때도 입었다 하고 그 외에 여러 파티나 여러 행사에 참가할 때도 입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사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본 결과로는 디자이너 작품이 맞고 그 당시에 입었던 것 같기는 한데 미스유니버스 대회에서 입으셨던 정확한 사진은 찾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플레이어 드레스는 신청 불가로 판단하였습니다.

○ ○○○ 위원장

질의 있으십니까?

(“불가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부결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다섯 번째 “囍”자수 타이트 이브닝 롱 드레스입니다.

□ <“囍”자수 타이트 이브닝 롱 드레스>

○ ○○○ 관계전문가

최경자 디자이너께서 우리나라 1세대 디자이너로 평가받으시는 분인데 그분께서 한일 친선행사 때 패션쇼에 보이셨던 옷으로 소개가 되어 있고 그 가치를 많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다음 쪽 사진을 보시면 디자인이나 이런 것은 보셔서 ‘파이핑이 있다.’ 이런 설명을 보실 텐데 디자이너가 패션쇼를 위해서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사회상을 반영하거나 그럴 가치를 부여하기 어려워서 신청 불가로 판단하였습니다.

○ ○○○ 위원장

이 이브닝드레스는 자수가 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고 ○○○ 디자이너 분이 소유자 ○○○의 어머니세요. 그래서 ○○○○○을 쪽 하고 이 소유자가 올린 이유는 어머니의 디자이너로서의 명성 이런 것도 한 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런 이브닝드레스는 꽤 드문 것도 아

니고 한국적인 특색이 있는 것도 아니고 ‘囍’자라고 수를 놓은 게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사자 의견을 저는 따르고요. 혹시 반대 의견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장

일단 이 롱 드레스도 조사자 의견대로 불가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다수)

다음은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패널 장식 타이트 이브닝 롱 드레스입니다. 설명해 주시죠.

□ <패널 장식 타이트 이브닝 롱 드레스>

○ ○○○ 관계전문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드레스와 거의 같은 상황입니다. 디자인이 다른 드레스이고요. 같이 패션쇼에 여러 번 선보였던 드레스입니다. 마찬가지로 1세대 디자이너 최경자 님의 작품이고요. 그리고 ○○○님께서 계속 보관하셨던, 그래서 연대가 확실하기는 합시다만, 이것도 국가 등록문화재로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 ○○○ 위원장

앞의 견하고 제작수법은 동일해요. 그런데 윗부분의 디자인만 조금 다른 드레스입니다. 그래서 조사자께서는 등록은 불가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수는 앞의 것은 보다 좋기는 합시다만, 다른 위원님들 말씀 있으실까요?

○ ○○○ 위원

조사자 의견에 동의하고요. 혹시 의견서로 의견을 줄 때 (다른 방안을) 얘기할 수는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 ○○○ 위원장

그것은 우리가 회의결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관계 전문가분들께서 하시는 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이상 7건에 대해서 ○○○ 선생님께서 설명해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국가 지정문화재 사전 심의 건인데요. 국가 지정문화재 사전 심의 두 건인데 첫 번째 것은 조계사 석가 불도입니다. 2000년도에 서울시 126호로 지정된 것입니다. 이 문화재에 대해서는 ○○○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 지정문화재 사전 심의

□ <서울 조계사 목조석가여래좌상>

○ ○○○ 위원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사진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상은 현재 조계사 대웅전에 들어가시면 최근에 제작된 커다란 상을 바라보고 오른쪽에 있는 상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시면 사실은 크기가 작게 보이죠. 현재 있는 상과는 크기 차이가 많이 나니까요. 그런데 이 상은 원래 조계사 대웅전의 상이 아니고 1938년에 영암 도갑사에서 옮겨온 상입니다. 그 옮겨왔는지를 어떻게 아냐면 당시의 신문기사가 남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옮겨오고 동시에 만든 불화가 있습니다. 1938년 불화인데요. 그 불화를 조성하면서 부기로 이 조계사 대웅전에 있는 이 상은 영암 도갑사에서 옮겨왔다고 적고 있어서 분명한 사실은 1938년에 이 상이 영암 도갑사에서 옮겨온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가지 기록도 모두 사실은 1938도 기록이어서 이 상의 제작연도를 아는 데는 크게 도움은 되지 않는데요. 출처는 알 수 있지만. 그런데 아쉽게도 이 상은 복장발원문은 현대에 만든 것뿐이지 원 복장발원문은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일제강점기 유리건판 사진으로 영월 도갑사의 상들 20여구를 한꺼번에 만듭니다. 이게 15세기 중엽인데요. 15세기 중엽에 한꺼번에 26구인가를 찍으니까 불행하게도 유리건판 사진은 남아 있지만 이 상은 다 불이 나서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옮겨오고 난 다음에 없어진 거죠. 20세기 전반쯤 불이 나서 다 사라졌고 남아 있는 것은 영암 도갑사의 상은 하나도 없고 유리건판 사진만 남아 있는데 하필이면 유리건판 사진이 여러 장이 남아 있는데 조계사로 옮겨온 상에 대한 사진은 없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얼굴이 완전히 같은 얼굴이기 때문에 현재 조계사 상과 같은 양식이기 때문에

또 설령 이 사진이 없다고 하더라도 현재 남아 있는 조계사 상만 보더라도 15세기 중엽 양식은 틀림없기 때문에 몇 가지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일단 15세기 중엽 영암 도갑사에서 만들었던 상은 크게 부정할 수 없고 인정할 만하기 때문에 국가 지정문화재로 일단 상정해서 판단을 받아보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 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시 유형문화재인데 국가 지정문화재로 승격하려는 문화재입니다. 도갑사에서 온 것이고 얼굴은 상당히 알팍한 편이에요. 여성스러운 얼굴이고 15세기 중엽 상이라고 합니다. 이 상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 ○○○ 위원

이게 15세기 양식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국가 지정으로 올리려면 대개 연대가 확실한 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 ○○○ 위원

예. 맞습니다. 그게 제일 치명적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일단 아까 보여드렸던 유리건판 사진과 양식적으로 동일하고 1938년에 영암 도갑사에서 옮겨왔다는 사실도 흥미롭기도 해서 일단 올려보자는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흠결은 있습니다.

○ ○○○ 위원

조각기법은 흑석사 그런 불상하고 어때요?

○ ○○○ 위원

맞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15세기 흑석사, 왕룡사원 등 거의 그 양식은 그대로 잘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양식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제작연도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세기 상이 거의 없거든요. 지금 우리가 복장 발원문을 정확하게 갖고 있는 것은 모두 17세기 상이고 이것은 15세기 상이라는 점에서 비록 복장발원문이 없고 정확한 제작연도를 알 수 없으나 그래도 사례가 드문 15세기 상이니 올려보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 위원

엑스레이 사진 속에 있는 정병 같은 것은...

○ ○○○ 위원

네. 그것은 후령통이라고 20세기에 어마어마하게 조계사에서 조성하신 겁니다. 저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열어보지도 않았습시다. 왜냐면 20세기 후반 저 복장 불사할 때 사진이 남아 있거든요. 1980년인가 언제 개금하시면서 저것을 넣으셨는데 넣었던 그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것은 따로 열어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열어보지도 않았습시다.

○ ○○○ 위원

제가 궁금해서 하나 여쭙보고 싶은데요. 제가 잘 몰라서 회화사 쪽하고 비교를 해서 문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이렇게 임진왜란 이전의 불상 또는 불화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 사료라든지 문헌이 없이 양식적으로만 판단해서 국가지정이 된 사례가 과거에 있었습니까?

○ ○○○ 위원

현재 국가지정이 된 것은 아까 말씀하신 흑석사처럼 정확한 복장발원문을 모두 갖고 있는 경우인데요. 15세기 중엽 복장발원문이 없이 지정이 된 예가...

○ ○○○ 위원

제가 여쭙보는 게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예를 들면 회화 같은 경우는 아무리 걸작이라고 해도 주관적인 요소가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게 그동안의 예였기 때문에. 그런데 불교문화재는 조금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여쭙보는 겁니다.

○ ○○○ 위원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흑석사나 천주사의 상 같은 것은 정확한 제작 연도가 복장발원문을 통해 있거든요, 15세기 중엽으로. 그 상과 비교해서 얼굴이 거의 같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있는 상들이 연도가 있는 상들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제일 왼쪽이 조계사이고 두 번째가 1458년 그다음에

천주사가 1482년, 1366년인데 왕룡사원은 조금 다르지만 흑석사랑 이 둘 다 왕실 발원인데, 천주사의 경우는 사진상으로는 조금 달라 보이지만 같은 얼굴입니다, 같은 양식이고.

○ ○○○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쭙보는 거예요. 회회가 또 워낙 모작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런 경우에 아무리 똑같다고 해도 안 되는데 불상 같은 경우는 후대에 똑같이 모각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양식적인 판단을 더 신뢰할 수 있는 모양이죠?

○ ○○○ 위원

아니요, 후대에 모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역시 다르거든요. 모각한 상과 처음 만든 상은 이게 진작이나, 위작이나로 딱 한 마디로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처럼 보면 ‘이것은 후대에 다시 만든 것이다.’, ‘이것은 처음에 만든 것이다.’라는 것을 경험으로 아는 것처럼 후대에 모각해도 모각한 것은 다릅니다.

○ ○○○ 위원

그게 불상에서 회화랑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 ○○○ 위원

혹시 ○○○ 위원님, 지금 조계사 불상의 바닥 복장공 그것도 최근 것인가요? 보수할 때 한 건가요, 아니면 원래 그대로 놔둔 것인가요?

○ ○○○ 위원

아닙니다. 여러 번 복장 불사를 새로 했기 때문에, 복장을 도난도 한 번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마감을 다 새로 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뜯어보지 않았습시다.

○ ○○○ 위원

혹시 조계사에서 이게 만일 ○○○ 위원님이 보시면 아실 것 같은데 내부의 목재를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 위원
일단 연륜연대 분석은 했습니다. 1465년±10년입니다.
- ○○○ 위원
연륜연대가 있으면 굉장히 중요한 자료인 것 같네요.
- ○○○ 위원
먼저 말씀드릴 걸 그랬네요. 1465년±10년 이렇게 조사됐습니다.
- ○○○ 위원
원래 기록이 없으면 과학적인 기록을 보면 좋죠.
- ○○○ 위원장
연륜연대가 어느 정도 추정되어 있고 얼굴은 15세기 중엽에 지정된 상들하고 거의 비슷하고요. 거의 한 작가가 만들지 않았나 싶네요. 조성기가 없어서 알 수가 없지만 많지 않은 조선전기의 유물이라는 점에서 ○○○ 위원께서 국가 지정으로 올려도 괜찮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반대가 없으시면… 반대 있으십니까?
- ○○○ 위원
한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조계사에서 소장하고 있더라도 1938년도에 영남 도갑사에서 이양을 한 것이라고 있기 때문에 제목 자체를 ‘조계사 목불좌상’이라고 붙이는 것은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 ○○○ 위원
요즘에는 소장처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 ○○○ 위원
그래요? 그런데 불상의 제작에 대한 유래라든가 등등을 따지면 도갑사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 ○○○ 위원
그런데 불상은 사실 수도 없이 옮겨 다니거든요. 사찰과 사찰끼리 주고받

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군데 옮겨 다니기도 하는데 최종 소장처로 명칭을 붙이는 게 현재로서는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례를 따라서 조계사 목불좌상으로 했습니다.

○ ○○○ 위원

알겠습니다.

○ ○○○ 위원장

명칭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있는 오래된 불상들은 사실 다 전국에서 올라온 좋은 유물들이 많이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아마 현재의 소장처를 앞에 내는 것이 그래도 덜 헛갈리고 문화재 안내판으로 해서 ‘이런데 어디서 왔다.’고 유래를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 이것은 원안가결로 할까요?

(“네.”하는 위원 다수)

네. 가결하셨습니다.

○ ○○○ 주무관

저 하나만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요.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125호로는 <조계사 석가불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보고서 써주신 것도 그렇고 <조계사 목조석가여래좌상>으로 국가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하시는지 여쭙습니다.

○ ○○○ 위원장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다수)

○ ○○○ 위원

저는 늘 ‘석가불상’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청에서 다 ‘여래’로 통일했기 때문에 석가여래좌상.

○ ○○○ 위원장

석가여래성도기에 대해서 ○○○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죠.

□ <석가여래성도기>

○ ○○○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잘 아시다시피 등왕각기를 쓴 당나라 시인 왕발이 석가여래성도 과정을 기록한 시문집입니다. 원래 신청할 때는 석가여래성도기주라고 신청이 들어왔고요. 권수제를 기준으로 하는 원칙에 따르면 석가여래성도기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석가여래성도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알려지기로는 석가여래성도기주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주를 단 사람이 북송 초에 혜오대사 도성이 주해를 한 책이 주로 유통이 됐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이 책은 시기적으로 보면 1253년에 분사대장도감에서 간행한 것이 판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연도도 나오고 정확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가 이 책의 가치는 기존에 알려진 팔상도, 보통 팔상도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의 근원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책이 언급이 주로 많이 되는 책입니다. 특히 도성이라는 인물이 석가여래행적송, 불조통기, 석가여래응화사적 이 책을 다 저술을 했기 때문에 이 책에 대한 주석을 단 배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 책이고요. 실제 그러면 이 책이 얼마나 남아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인데 전혀 남아 있지 않고 현재 고려 판본으로는 처음 알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조 전후 시기 조선전기에 을해자본이 간행이 됐습니다. 그 책 두 종이 시 유형문화재 단양 구인사본하고 부산의 성광사본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후기에 가서는 17세기에 들어서 지리산 연곡사에서 간행한 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은 현재까지는 국내에서 전래본이 없는 유일본입니다. 그리고 내용뿐만이 아니고 분사대장도감에서 판각했다는 그 간기. 사진을 보여주시죠. 왼쪽 하단에 있는 간기입니다. 그 간기에 분명히 계축년 분사대장도감 중조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서 기존에 알려진 분사대장도감판, 그러니까 고려재조대장경을 만들고 추가로 입장을 한 판본들이 있는데 그게 지금 15종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것에 한 종을 더 추가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유물이 발견돼서 이것은 국가 지정문화재로 신청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 위원장

감사합니다. 팔상도의 증거가 되는 석가여래성도기인데 현재 연대가 가장 오래 된 것 같습니다. 고려시대 것인데 이것에 대한 질의라든지 혹시 덧붙일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

하나 여쭙보겠는데, 이게 지금 개인 소장인데 바로 국가 지정 신청으로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사진을 보면 첫 장하고 간기에 소장인 같은 것이 있는데 혹시 그것들도 파악이 됐는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 ○○○ 위원

인장은 정확하게 판독이 잘 안 돼서 모르겠는데 이것은 조금 후대의 인장입니다. 그때 당시의 인장은 아닙니다. 조선후기 이후에 찍은 인장이 되겠습니다.

○ ○○○ 위원

이게 개인소장인데 요즘에 그런 것을 따지니까요. 이 작품의 전래경위, 전수경위, 입수경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이고요?

○ ○○○ 위원

예. 소장자가 신청할 때 그 내용을 보니까 어느 주지스님 한 분을 계속 모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분한테 남기고 돌아가셨답니다.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 ○○○ 위원

도난문화재 여부 확인만 해서 도난문화재로 등록이 안 됐으면 국가 지정으로 하는 데 동의합니다.

○ ○○○ 위원

이분 신청서에 보니까 종진스님이라는 분이 해인사 울주를 역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서울에 올 때 항상 현 소장자 덕에 들러서 보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님이 오는 방을 별도로 마련까지 했다는데

그동안 도와준 은혜에 보답한다고 그러면서 이것을 전해주고 돌아가셨다고 하네요.

○ ○○○ 위원장

도난문화재에 대한 의심은 별로 없다는 말씀이시죠?

○ ○○○ 위원

예. 신청서상으로는 그렇습니다.

○ ○○○ 위원

첫 장하고 간기에 같은 도장이 찍혀 있는데 보니까 한글인 것 같네요. 조선시대는 한글도장을 만들지는 않죠.

○ ○○○ 위원

예. 맨 마지막에 찍힌 것은 선생님 말씀대로 한글 같고요. 이것은 지금 제가 판독을 정확하게 못 했고요. ○○○이라는 인물인 것 같습니다. ○○○인이라고 되어 있네요. 마지막 장도 한글인데 제가 판독을 못 했습니다. 첫 장에 있는 것은 ○○○입니다.

○ ○○○ 위원

지금 그게 문화재청 사이트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 선생님이 잠시 하시고 다음 것을 먼저 진행하면서 하고 도난문화재 여부를 확인해서 하면 어떨까요?

○ ○○○ 위원

예.

○ ○○○ 위원장

그러면 잠시 보류로 하고요.

○ ○○○ 위원

여기 신청서에 있는 내용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면 일제강점기에 활동한 ○○○ 스님이라고 하네요. 이분으로부터 종진스님이 입수한 것으로 추

정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 ○○○ 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도 ○○○이 나오거든요.

○ ○○○ 위원장

그러면 어느 정도 증명이 된 것 같아서 가결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다수)

■ 서울시 지정문화재 사전 심의

□ <호국지장사 불복장 저고리>

○ ○○○ 위원장

이제 서울시 지정문화재 사전심의 11건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호국지장사 불복장 저고리입니다. 이것은 제가 호국지장사 후령통 때문에 장경희 위원님과 같이 면밀히 조사를 했는데 저는 복식은 안 보고 후령통만 열심히 봤습니다. 그래서 후령통은 서울시 문화재로 일괄로 해서 됐고 이때 복식은 ○ 위원님이 “국가 민속문화재로 올리자.” 왜냐면 조금 훼손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했던 것인데 국가에서는 부결돼서 서울시 지정문화재로 권고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호국지장사는 현충원 내에 있고 그 내에 중종의 후궁인 창빈안씨의 묘역이 있고 그 호국지장사가 원래는 화장사였는데 안씨의 원찰로 했던 사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선조 때 원찰로 했다는 것이고요. 화장사로 했다는 것이고요. 이 저고리는 크게 봐서 중저고리예요. 짧은 저고리가 아니고 중저고리라고 해서 견마기라고 부릅니다. 예를 갖추기 위해서 덧입는 저고리. 그래서 이게 겨드랑이 옆선에 트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그 내용을 보면 이런 형식은 견마기라고 그러는데 여기 겨드랑이에 삼회장저고리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천을 댔다는 것을 또 견마기, 앞의 것은 저고리 형식은 견마기이고 코는 이 부분의 깃이 그냥 직각으로 내려오지 않고 거기가 약간 버선코처럼 생겼다고 해서 목판당코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특징이 저고리 고름이 가늘고 되게

짧아요. 그런데 이 유물이 보통 이 시기 정도의 복식이라고 하면 무덤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거의 색이 어떤 색인지 변색이 돼서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유물은 불상에서 나왔기 때문에 원색을 그대로 갖고 있고 녹색과 자주색 색감을 그대로 갖고 있어서 조선중기의 염색 도료 그다음에 복식의 형태 이런 것을 알 수 있어서 가치는 있으나 안에 보면 많이 해졌어요. 그래서 국가 민속문화재로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로 우리가 권고를 했지만 서울시에서 이것을 유형문화재로 보기보다는 민속문화재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솔직히 말해서 복식의 변화과정이라든지 첩이 짧아졌다. 예전 것은 길다, 옆이 안 툇었다 이런 것 정도만 알지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 ○ 위원님이 자세히 썼으니까 조금 더 한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담당자 얘기로는 국가에서 이렇게 무엇 무엇으로 하라고 내려오면 지정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민속자료로 할 것이냐.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할 것이냐. 이 차이인데요. 그래서 종목을 유형문화재보다는 민속문화재가 어떨까 싶습니다.

○ ○○○ 주무관

사실 유형문화재도 상관이 없고 민속문화재도 상관이 없습니다. 둘 다 서울시 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물론 지정은 무조건 해야 하고요. 어떤 것으로 지정할지에 대해서 종목만 상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 위원장

복식은 대체로 민속문화재를 많이 하죠.

○ ○○○ 위원

그러면 민속문화재로 하는 게 어떨까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다수)

○ ○○○ 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민속문화재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다뉴세문경입니다. ○○○ 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 <다뉴세문경>

○ ○○○ 위원

발표하겠습니다. 제가 이미지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뉴세문경 인데요. 이 물건은 일단 골동품상에서 매입한 물건이라서 출토지라든가 전래상황을 알 수가 없고요.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국보 제141호와 문양이라든지 꽃이라든가 상당히 유사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국보 옆에 보시는 바대로 141호가 21.2cm인데 그것보다는 상당히 커요. 28.2cm이고요. 조각 상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여기 문양을 보시면 동심원문에서 원래 국보 141호에서는 기술상의 문제 때문에 중심으로 갈수록 약간 뭉개지는 게 보이는데 지금 상정된 물건은 중심점까지 굉장히 선명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이 다른 점이고요. 그다음에 가장 특이한 점은 누가 아홉 개예요. 보통 다뉴세문경에서 두세 개가 가장 많고 그다음에 간혹 다섯 개 또 일곱 개가 보이는 것은 있습니다만, 이렇게 아홉 개가 달려 있는 것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사할 때 이 구멍 안쪽도 많이 봤는데 주조 상태와 *(76:46)이라든가 이런 것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심원 문양에서 안쪽까지 선명하게 된 점도 특이하고 그다음에 표면도 약간 이상한 점이 있기는 있었어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렸듯이 본 적이 없는 아홉 개의 그 누가 문제가 되고 이런 문제로 해서 출토지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 때문에 이 유물은 진위를 얘기하기도 어려운, 그래서 서울시 지정문화재로 하기는 미흡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 ○○○ 위원장

예. 도판상으로 보셔도 국보하고 비교하시면 색감이 달라요. 우리나라 청동기는 오래되어서 약간 검은빛을 띄는데 여기 신청한 건은 밝고 거친 ○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일견에 “아~”라고 그랬습니다. 보존과학을 하신 ○○○ 위원님 다른 말씀 있으실까요?

○ ○○○ 위원

부식 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뭔가 이상한 느낌들이 많이 들고요. 만약에 이게 가결로 갔으면 추가로 분석을 해서 하면 되는데

부결로 갔기 때문에 분석이나 이런 것 필요 없이 부결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이 어설프고 일부러 부식을 시켜서 한 느낌들이 많이 듭니다.

○ ○○○ 위원

안쪽도 상당히 매끄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약간 미심쩍었습니다.

○ ○○○ 위원장

만들기는 정교하게 만든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첫눈에 봤을 때 느낌과 진작(眞作)에서 느껴지는 것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물건을 뭐라고 얘기할 수 없고 시대미상이어서 이것은 저희가 불가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의 없으시면 불가로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다수)

네. 다음은 죽리 신임초상 도판인데, 이 역시 ○○○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 <죽리 신임초상 도판>

○ ○○○ 위원

네. 연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도 이미지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소장자가 골동품상에서 구매한 물품이라서 출토지나 전래 경위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진으로 보시면 잘 모르시겠지만 지름이 30cm에 두께가 0.5cm로 상당히 크고 두껍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거워요. 이렇게 큰 동판인데 앞면에는 초상이 새겨져 있고 뒷면에는 학이라든가 달이라든가 해라든가 이렇게 십장생문이 굉장히 자유로운 꼭지로 새겨져 있고 그다음에 중앙 부분에 보시면 ‘右參贊竹里申公八十一歲眞’이라고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찾아보았을 때 이 초상의 주인공은 숙종대 기사계첩에 실렸던 기사공신 9명 중의 한 분인 신임이라는 문신이고 이 신임의 초상이 여러 버전이 있는데 단령복을 입

은 초상에다가 ‘八十一歲眞’은 이 기사계첩에 실린 초상화 한 점뿐이에요. 그래서 이 번본은 기사계첩의 초상화라고 보게 됐고요. 그다음에 동판의 우편에 보면 꼭지가 있는데 꼭지의 앞면에는 화초문 그다음에 뒷면에는 거북이가 새겨져 있고 둘레에는 연주문, 아자문. 그래서 이 초상과 십장생 그다음에 연주문, 아자문과 거북이 이런 조합이 너무 이상해요. 주조 기술과 새긴 것은 굉장히 잘 새기기는 했는데 한·중·일을 막론하고 이런 크기의 순동판에 이런 초상화를 새긴 이런 사례가 없더라고요. 결정적으로 글씨를 보면, 오른쪽에 있는 초상화가 바로 기사계첩의 그 초상화인데 여기 맨 윗단에 글씨가 쓰여 있잖아요. 이게 그대로 이 동판의 뒷면 중앙에 되어 있는데 이 초상화의 글씨랑 비교했을 때 이 동판에 새겨진 글씨가 서체가 섞여서 무슨 서체라고 할 수 없는, 글씨 보시는 분들이 ‘본데없는 글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글씨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살펴봤을 때 이런 형식 자체가 사례가 없고 그다음에 글씨가 무슨 서체라고 논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어설피고 더군다나 자세히 읽어보시면 나오겠지만 기사계첩의 초상 부인에 관련된 유물이 초상화 말고는 단 한 점도 없어요. 이런 동판뿐만 아니라 다른 기념물이 없는데 유독 이 신임의 동판만 나왔다는 것도 참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위 내지는 시기를 논할 수도 없고 그냥 불상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물건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일단은 지정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조한 동판초상화는 처음 봐요. 상당히 크고 주조는 나름대로 세부분양이나 이런 것은 잘했는데 글씨도 그렇고 전체 재질로 봐서도 이것도 시대미상이라고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 ○○○ 위원

왜 만들었는지 용도를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꼭지에 구멍이 두 개가 있기는 한데 이 두 개가 진짜 무거워서 끄끄대고 들어야 할 정도로 무거운데 이것을 끈으로 매달아서 어디에 달기도 그래서 용도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 ○○○ 위원장

별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조사자 의견을 따를까 하는데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다수)

신임초상 동판도 불가입니다. 다음은 서예죠. 우암 송시열 행초 휘호입니다. ○○○ 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 <우암 송시열 행초 휘호>

○ ○○○ 위원

안녕하십니까? 방금 ○○○ 교수님이 발표하신 글자는 일자무식 도공이 만든 글자 수준이에요. 그다음 앞에 ○○○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글도장은 한자는 ○○○ 님이 맞고 한글은 ○○○이라는 사람의 한글 도장이고요. 그것은 현대에서 새겨서 소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발표할 것은 4번, 5번인데요. 일단 우암 송시열 행초 휘호입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부결인데요. 그림만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陽氣發處 金石亦透 精神一到 何事弗成’이라는 우암의 대자 행·초서인데요. 이것은 미술품 경매시장에서 2019년도에 입수가 됐습니다. 옛날에 우암 대자서가 많이 있는데요. 이것과 거의 흡사한 형태의 글씨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뒷면에 나오는데요. 일단 이것은 네 면으로 되어 있고 대자이고 마지막 면에는 낙관처럼 발문이 쓰였습니다. 그것은 1850년생 채경묵이라는, 기록은 한미한데 채경묵이라는 사람이 집안에 전해오는데 이것을 잘 보존하라고 후손에 전해줬다고 쓰여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마지막에 불성할 때의 ‘불’자가 ‘不’자가 아니고 ‘弗’자로 되어 있죠. 그게 조금 특이한데요. 뒤에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송준길이 같은 내용을 대자 휘호를 한 적이 있어요. 여기에는 ‘不’자로 되어 있는데, 송준길의 글씨를 보고 나서 거기에 감흥을 얻어서 송시열도 휘호를 했습니다. 그 기록이 또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한 휘호는 바로 송준길 작품 밑에 있습니다. 송시열의 양기발처인데요. 이것은 삼현진묵이라는 책에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마지막에 정신일도하사불‘수’라고 되어 있어요, 송시열이 쓴 것은. 불성을 불수로 썼는데 불수로 쓴 이유를 문집에 남겨 뒀습니다. 그런 근거자료가 있는데 지금 올라온 심의 건하고는 불성이냐 불수냐 이것하고 ‘不’자가 다른 점. 그다음에 또 필획 자체가 서예적으로, 예술적으로 보면 일기가 관

통하지 않는 약간은 우암의 글씨라고 추정하기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 위원님께서도 보셨는데 이게 거의 300여년 됐는데 지질이 너무나 깨끗합니다. 그래서 과학조사까지 하기는 했는데 조사해서 특별하게 나오지는 않았습시다만, 일단은 앞서 다른 사례들, 송준길과 송시열의 다른 글씨들의 근거자료들과 비교해서는 이것을 문화재로 하기에 힘들겠다는 판단입니다. 이상입니다.

○ ○○○ 위원장

감사합니다. 적외선 촬영까지 다 하셨는데 결론은 근거자료가 없다는 의견으로 불가 의견을 내셨습니다. 이 문화재에 대해서 관련되시는 선생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 ○○○ 위원

조사자 의견에 동의합니다.

○ ○○○ 위원장

조사자 의견대로 불가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유목입니다. ○○○ 위원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까.

□ <유목>

○ ○○○ 위원

이게 14세기 행촌 이암에서부터 17세기 백하 윤순까지 44인의 필적을 장첩해서 대대로 전해졌는데 행촌 이암에 안평대군의 사경까지 있다고 하고 또 유명한 사람으로는 황기로의 초서, 백하 윤순의 글씨 또 나머지는 17세기에 주로 활동했던 일반적인 문인들의 글씨가 장첩되어 있는데요. 제일 먼저 행촌 이암의 사경인데 행촌 이암의 글씨가 저도 진품을 제대로 본 적이 없는데 과연 저게 정말 행촌의 글씨일까? 서체적으로도 조금 납득하기 힘들고요. 그다음에 안평대군의 글씨는 그 시대의 그러한 사경품은 있는데 안평대군 글씨라고 하기에 도저히 말할 수가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소장자는 각 페이지마다 누구의 글씨라고 간지를 잔뜩 써놨는데요. 그것은 후대에 다 붙여놓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황기로의 초서도

한 면이 있었는데 후대에 팬으로 막 낙서를 해놔서 보존상태도 좋지도 않고. 윤순의 글씨도 나왔는데 윤순의 글씨라고 확정할 수 있는 근거나 정황이 없어서 이런 경우는 집안 대대로 옛날 분들의 글씨인데 장첩해놓은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문화재로 얘기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너무 많다. 그래서 부결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 위원장
부결로 말씀하신 거죠?

○ ○○○ 위원
네.

○ ○○○ 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다수)

○ ○○○ 위원
안평대군의 발문이 있는 경전에도 보면 안평대군의 글씨가 저렇지는 않던데요. 잘은 모르지만 저 글씨는 너무 현대적인 것 같아요. 조사자 의견에 동의합니다.

○ ○○○ 위원장
그러면 불가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주 중요한 경혜인빈상시호죽책에 대해서 ○○○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경혜인빈상시호죽책>

○ ○○○ 위원
예. 이 죽책은 1755년에 제작된 경혜인빈상시호죽책입니다. 이 죽책이 개인이 소장하고 있다가 1920년도에 옥션을 통해서 서울공예박물관이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서울공예박물관에서 먼저 조사가 되었고 재차 이

번 지정조사에 가서 조사를 하고 왔습니다. 이 죽책은 아시다시피 영조대의 선조의 후궁인 인빈 김씨에게 휘호를 올릴 때 조성된 죽책이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이 죽책을 조성할 때 같이 제작된 경혜인빈상시봉원도감의 궤가 있습니다. 병인양요 때 프랑스에 이탈되었다가 2011년도에 환수가 되어서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데요. 이것과 비교해서 보시면 이 죽책의 조성에 대한 전말이 다 상세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의궤를 보시면 도설이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유물하고 비교해볼 수 있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해볼 수 있고요. 또 이 의궤 내용 중에 제작과정에 대해서 아주 상세히 기록이 되었는데 당대 최고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최고급 재료와 최고급 기술. 그래서 고급 왕실 공예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과 비교해봤을 때 진위가 확실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 죽책은 보시면 열 첩의 죽책이고요. 죽책을 싸고 있는 책갑이 있고 이 열 첩의 사이 사이에 보호하기 위해서 끼워져 있는 유격보가 여덟 점이 남아 있습니다. 죽책과 책갑이 펼쳐진 형태를 보실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의궤 도설에 나오는 책갑인데요. 이 형태 그대로 나와 있고 여기 보시는 대로 단추가 달려 있는데 책을 싸고 단추로 여미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똑같이 남아 있습니다. 단지 죽책이 닿는 부분이 자꾸 닿게 되니까 해진 부분이 있고 단추가 대부분 떨어져 나가고 두 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만 좀 다르고 도설하고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책갑과 격유보의 사진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열 첩으로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청죽대에 주철을 하고 거기에 글씨를 새기고 니금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금색으로 글씨가 표현되어 있고요. 이 둘레의 회장은 변철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동에다가 조이질을 했어요. 조이질로 굉장히 세밀하게 문양을 새기고 거기다 금도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급 재료와 최고급 기술로 그 당시에 제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상은 그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책갑은 줌치기법이라고 하는데 비단 사이에 종이를 끼워서 약간 뽀뽀하게 제작했고요. 격유보는 비단 사이에 솜을 넣어서 제작했습니다. 이렇게 만든 제작과정이나 제작 형식은 전형적인 죽책과 책갑과 유보를 만드는 방식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이 죽책이 지금 우리나라에 43건이 존재를 하는데 그중에 죽책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왕세자 이하의 격에 맞춰진 책인데 그중에서 왕의 사친에 관련된 죽책이 네 건입니다. 네 건 중에서 이 경혜인빈상시호죽책이 가장 시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시대와 진위와 격과 여러 가지를 따

졌을 때 이 유물은 우리 서울시 지정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너무 길어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혹시 미흡한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대답해드리겠습니다.

○ ○○○ 위원장

예. 지금 서울공예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것이고 인빈 김씨에 대한 이야기를 쪽 적은 것입니다. 상당히 정교하게 잘 만들었고 여기 가장자리 금속의 조이질도 전부 어자문 같은 것으로 아주 섬세하게, 궁중 장인이 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아주 잘 되어 있고 보존상태도 매우 양호합니다. 특히 금무늬 입혀진 것도 별로 바라지도 않고 거의 새 것 같고요. 그리고 격유보도 솜을 넣어서 충전재를 넣었던 것까지 그대로 다 갖춰져 있고 이 특징이 아까 ○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열 폭이라는 점,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 ○○○ 위원

위원장님, 제가 그림만 보고 하다 보니까 잠깐 빠트린 게 있네요. 다른 것들은 전부 팔 첩이에요. 그런데 이 죽책만 열 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대가 올라가서 이것만 그렇게 된 건지 그때 당시에 조금 더 정성을 쏟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건만 열 첩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존상태가 굉장히 좋은데, 단지 격유보가 원래는 아홉 점이어야 해요. 열 첩의 사이사이에 끼어야 해서 아홉 점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하나가 유실이 되어서 없습니다. 왜 없어진지는 모르겠지만 한 점이 없어서 팔 점이에요. 그게 하나 안타깝고. 그다음에 외암, 내암이 없다는 것. 그런 것을 제외하고도 지금 보존상태가 아주 좋고 확실한 유물이라서 유실된 점이 있어도 지정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 ○○○ 위원장

이 서체를 같이 조사하신 ○○○ 위원님, 서체를 잠깐 소개해 주실까요?

○ ○○○ 위원

글씨는 왕희지 소해 같은 품격인데요. 글자가 아주 섬세하고 수준이 매우 높습니다. 심란이라는 사람이 쓴 건데 심란의 글씨 중에서도 베스트 오브 베스트입니다. 이상입니다.

○ ○○○ 위원

지금 죽책이 있고 책갑이 있고 격유보가 있잖아요. 그런데 보고서에 보면 1건 10점으로 되어서 아마 죽책을 가지고만 카운트를 한 것인지. 이게 공예박물관에서 아예 명칭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지. 그럴 수도 있겠는데 사실 이 유물을 구입할 때 저도 이것을 봤기 때문에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격이보도 중요하고 갑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명칭이 든 아니면 이 안의 내역에 뭔가 일괄품으로서 수량을 좀 더 명확히 해줘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격유보가 한자어로는 맞는데 겹유보, 격유보 이게 혼용되고 있어서 그것은 통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 위원장

10점이라고 한 것은 죽책 한 점, 갑, 격유보 8점 이렇게 해서 열 점으로 친 것 같습니다.

○ ○○○ 위원

한 건에 열 점으로, 어쨌든 여덟 첩으로 같이 되니까요. 이렇게 1건 10점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것을 달리 풀어서 쓸 수가 없어서 이것은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격유보는 지금 계속 그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달리 뭐가 있을까요?

○ ○○○ 위원

보고서에 겹유보가 쓰여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요.

○ ○○○ 위원

제가 잘 모르지만 이 죽책이 다른 것들은 지정 상태가 어떻게 됐나요?

○ ○○○ 위원

지정된 것은 없죠. 왜냐면 옥책들은 격이 한 단계 낮기 때문에 왕세자하고 후궁들하고 그다음에 왕의 사친하고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43건이 있는데 지정된 것은 없더라고요.

○ ○○○ 위원

그러면 제목을 ‘○○일괄’ 이렇게 할 필요는 없나요?

○ ○○○ 위원

글쎄요. 이게 지금 외암, 내암이 없고 그냥 이것만 해도 되나요? 전체가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올렸는데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장

죽책 하나를 위한 사이사이에 간지 같은 것, 그것을 쓴 케이스. 이래서 그냥 죽책이라고 올린 것 같습니다.

○ ○○○ 위원

충분히 가치가 있는데 아마 고궁박물관에 일괄로 한꺼번에 다 보관이 되어 있으니까 신청을 안 한 것 같습니다.

○ ○○○ 위원

아직은 신청들을 안 하고 지정이 안 된 것 같은데 충분히 앞으로는 지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 위원

가능할 것 같습니다.

○ ○○○ 위원장

시간관계상 좋은 유물이므로 가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청자 양각 모란문 금구완입니다. ○○○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자 양각 모란문 금구완>

○ ○○○ 위원

청자 양각 모란문 금구완. 사진 중심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맨 윗줄에 있는 세 점이 옆면, 앞면, 뒤집어서 바닥면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다. 금구라는 것은 구연에 금속으로 테를 돌렸다고 해서 금구라고 하고 이미 10세기경에 아시다시피 ‘고달사원종대사혜진탑비’ 같은 곳에 보면 원종이 원종대사에게 금구자발을 하사했다는 구절이 등장하기 때문에 아마 10세기경에는 그게 중국산이든 고려산이든 금구를 한 도자기, 완, 발류가 유통되고 있었다는 정도로 이해하고 있었고 본격적인 연구는 석사논문이 한 편 정도 나와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근래에 수년간 발굴이나 조사를 통해서 파주의 혜음원지라든가 강화의 석릉이라든가 개경의 희천시 서문동 이런 데서 일부 금구가 남아있는 것들이 발굴이 되고 지금 사진의 맨 아랫단에도 보시면 그냥 전세품으로 전하는 것 가운데에도 금구가 있어요. 그래서 금구는 애초부터 모양을 예쁘게 하기 위해서도 하지만 중국에서는 오히려 구울 때 구연부가 유약이 벗겨지니까 거기에 씌우기 위해서 주로 했던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오히려 굽지 않았는데도 외형이나 아니면 구연이 깨져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깨지지 않아도 향후에 안전하게 쓰기 위해서 한다거나 이런 등등의 목적들로 이런 금구를 씌우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상태를 보면 굉장히 안팎의, 유약의 상태, 건조 상태, 고른 색깔 그리고 뒤집었을 때 아주 곱게 규석 받침이 남아 있는 것, 굽이 약간 벗겨지기는 했지만 그런 정도가 굉장히 안정감 있고 상태가 좋은, 그래서 12세기에서 13세기에 살짝 걸쳐있는, 13세기도 중반을 많이 안 넘을 것 같은 상당히 전성기 때의 훌륭한 유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한 연대라든가 출토지 이런 게 명확하지는 않지만 이 금구 부분은 그 뒤쪽을 보시면 102쪽부터 양필승 선생님이랑 보존과학하시는 분들께서 측정을 또 하셨어요. 그래서 그 성분분석이라든가 표면 검사 등을 해서 이 금속의 성분에, 구리에 약간 도금을 한 이런 경우가 합금으로 추정되고 표면상태라든가 이런 것은 특별히 망가지거나 보수하거나 이런 것 없이 상당히 보존상태가 좋은 편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출토지라거나 연대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봤을 때 서울시에 청자가 지정되어 있는 예가 거의 드물고요. 그리고 그냥 이 금구가 없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면 청자 중에서 굉장히 양호한 상태인 거고 그런데 거기에 금구가 더해져서, 물론 이 금구는 더 데이터를 쌓아서 이게 정말 어느 시대에 어떻게 들어간 것인지는 좀 추후에 해야 하겠지만 크게 고려에서 벗어나지는 않는다고 현재로서는 추정이 되는데 이런 것이 같이 조합되어 있는 상태 등으로 봤을 때 서울시 지정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은 손색이 없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 위원장

예. 도자기 자체도 좋고 거기에 장식으로 한 것 같은 유물입니다. CuZn 이죠, 황동 성분. 그래서 조사자 의견은 상당히 좋은 유물이라고 지정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 ○○○ 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가 금구 부분을 분석했는데요. 사실 금구와 상관이 없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자기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지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금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박물관에 있는 청자는 은구대접이라고 되어 있죠. 그것은 확실하게 은으로 되어서 그 은이 부식돼서 까맣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아마 제가 지금까지 조사한 금구가 있는 도자기를 봤을 때 황동으로 보입니다. 구리하고 아연이 섞인 건데 이것은 시대가 많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청동이면 옛날 것이라고 알 수 있는데 아연이 들어가 있어서 시대가 나중이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해봤고요. 그렇게 된 우리나라 도자기는 대만의 고궁박물관에 한 점, 그런데 그것은 제가 가서 직접 분석한 게 아니고 거기에서 나온 자료만 가지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판단하기에는 고려시대에 금구를 씌웠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아까 장남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혜음원지에서 발견된 것들은 대부분 주석을 사용해서 금구를 씌웠는데 아연이 검출됐다는 것으로 봐서는 조금 뒤 시기에 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 위원장

양 위원님 말씀은 아연이 좀 후대라는 말씀이시죠?

○ ○○○ 위원

예.

○ ○○○ 위원장

그런데 그게 있어서 이 금구를 나중에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고 그런데 장 위원님은 금구가 있건 없건 간에 유물 자체가 상당히 수준급이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원안가결을 하면 설명서에 이 부분은 추후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이는 게 어떨까요? 일단 원안가결 하고요. 다음은 이어서 장 선생님이 백자청화 수복 화당초문 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 <백자청화 수복 화당초문 반>

○ ○○○ 위원

백자청화 수복 화당초문 반 이것도 사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위의 두 개 그리고 왼쪽의 첫 번째, 두 번째까지가 해당 유물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사이즈가 아주 크지는 않지만 운두가 깊은 전이 있는 반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에 보시면 ‘수(壽)’자와 ‘복(福)’자가 도안 문자로 번갈아가면서 완전히 도안화 된 청화 글씨체로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아래 중간에 이대박물관 소장 이렇게 쓰여 있는 64년 이후라고 된 이런 발들에 나타나는 문자와 거의 같은 형식인데 왜 1864년 이후라고 적었냐면 1863년에 고종이 즉위하고 윤현궁 잠저가 궁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는데요. 이 그릇들, 이대박물관 소장품은 굽 부분에 보면 윤현명이 정각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원군이 거기에 머물게 되고 섭정을 하게 되는 언저리부터 사용됐던, 그래서 관요에서 제작해서 궁호를 적고 그쪽에 내려줬던 물건들이 아닌가 하고 본다면 적어도 19세기 중반 언저리 이후에 제작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문제는 저 안에 있는 굉장히 화려하게 그려져 있는 청화의 문양입니다. 색깔은 상당히 흐리게 발색이 되어 있어요. 측면 문자에 비해서 발색이 되어 있는데 이런 굉장히 얇혀 있는 것 같은 식물문과 이렇게 운두가 깊고 측면이 이렇게 벌어진 여러 발의 형태 같은 것은 중국으로 말하자면 거의 비슷한 시기인데 19세기 2/4분기에서 중반 이후에 주로 생산되어서 도광 연간에 많이 제작되고 또 청화가 아니더라도 채회자기 같은 것들로도 만들어져서 수출품이나 이런 것들로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대략 19세기 중반 언저리 이후에 많이 유행했던 형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대박물관 이 세 번째 오른쪽 편에 있는 소장품에도 반이 비슷한 게 있는데 그런 것에 비하면 현재 보이는 지정신청이 올라온 이 유물은 여러

가지 세부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시기가 늦은 것으로 보여서요. 분원리에서 제작한 것은 맞지만 19세기 여운이 남아 있는, 그래서 아주 빨라도 19세기 말, 아니면 20세기 초 언저리까지도 볼 수 있는 유물이라고 생각됩니다. 유물 자체가 특별히 나쁘거나 못 만들어졌다거나 가품이라든가 혹은 어디가 손상되었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만, 특별히 이것이 지정되어야 할 특별한 이유도 딱히 현재로서는 찾기가 어려워요. 이 반에 대한 연구도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이런 기물로서 상당히 많은 다른 사례들이 더 궁호가 적혀 있거나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과 비교했을 때도 시기라든가 발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늦고 조금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아직은 그렇게 딱히 지정할 만한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있다고 보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어서 일단 불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 위원장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정을 하고 계시고 현재로서는 특별히 지정할 만한 이유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다수)

여러분이 동의하셔서 부결로 하겠습니다. 세 건이 남았는데요. 아홉 번째 말고 열 번째 법화영험전 이것을 ○○○ 위원님이 먼저 하시겠습니다.

□ <법화영험전>

○ ○○○ 위원

법화영험전은 제가 같이 조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가 요원이라는 고려후기 천태종 승려가 지은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원이라는 인물에 대한 것은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고요. 그런데 이게 원래 법화경을 지니고 독송, 필사, 강설하는 여러 가지 영험의 사례를 모아서 실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이 책이 남아 있는 것이 고려시대 때 만의사판이 있었다고 하지만 이것은 지금 알려지지 않고 현재 보

통 경남유형문화재로 지정된 것 중에 1534년 고창 문수사판이 있습니다. 고창 문수사판이 현재 있는데 이 고창 문수사판은 의외로 비교적 많이 남아 있죠. 그게 고대하고 계명대 쪽에 있는데 이 뒤에 나온 것, 바로 직후에 나온 거죠. 현재 소장하고 있는 것이 함경도 안변의 석왕사판입니다. 안변 석왕사판은 아직까지는 확인된 것이 잘 없어서, 물론 더 찾아보면 더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확인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544년이고 간기가 확실하고, 간기를 보면 ‘嘉靖二十三年甲辰(1544)’, ‘咸鏡道安邊釋王寺開板’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알려지지 않은 책이고 이 인장은 너무 흐려서 제가 판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니까요. 유형문화재로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 위원장

감사합니다. 법화경에 대한 영험전을 모아서 묶은 책입니다. 석왕사에서 간행됐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몇 가지만 간단히 질문해 주십시오.

○ ○○○ 위원

초간본인가요, 후쇄본인가요?

○ ○○○ 위원

완전히 후쇄는 아니고요. 그 당시에 아마 찍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약간 후쇄입니다.

○ ○○○ 위원

저는 다른 의견 없습니다.

○ ○○○ 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면 가결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9번으로 돌아가 고성이씨 금암가 경서 필사본 4종에 대해서 옥영정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 <고성이씨 금암가 경서 필사본 4종>

○ 옥영정 위원

이 자료가 신청서에서는 문화재 명칭을 이분이 ‘안동 고성이씨 임청각후 금암가 경서필사본일괄’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이분은 아마 임청각이라는 것을 강조하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임청각 후손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중에 이분은 특히 금암 이시룡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직계후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갖고 있던 책이 필사본 일괄인데요. 시, 서, 역, 예기 네 종입니다. 그런데 이런 책을 필사한 것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이것을 신청하게 된 이유가 맨 마지막에 대상 이상정이 쓴 글귀가 있습니다. 이상정이 친필로 거기에 지문을 써놨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나의 외형 이공, 그러니까 여기 이원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원옥은 누구냐면 금암 이시룡의 아들이고요. 그 아들이 ‘나이 70이 되어가는데도 역경, 시경, 서전, 예기를 친히 필사해서 그의 아들에게 남겨주었다. 옛 사람에 비하면 … 더욱 공경할 만하다.’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시룡의 아들 이원옥이 1775년 이전에 이 책을 필사해서 아들인 이홍중에게 전해준 책입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흐름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이 지문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거고 실제로 그게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유형문화재로 신청한 것 같은데 판단을 해보니까 이것을 유형문화재로 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것은 정말 문화재자료로 가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과 같이 합의가 된 상황이라는 한데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서인을 한 번 보시죠. 거기에도 명확하게 인장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홍중인’ 그다음에 ‘경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형문화재가 아니고 문화재자료로 올리셨습니다.

○ ○○○ 위원

이분이 신청한 것을 부결시키고 다시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 ○○○ 위원

시 유형문화재나 문화재자료나 같은 문화재라서 상관없을 것 같아요.

○ ○○○ 주무관

예. 지정 건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 ○○○ 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유형은 아니지만 자료로 올리신 것을 저희가 가결하면 됩니다.

○ ○○○ 위원

예.

○ ○○○ 위원장

이의 없으신가요?

○ ○○○ 주무관

그러면 9번 고성이씨 금암가 경서 필사본 4종은 문화재자료로 가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예.”하는 위원 다수)

○ ○○○ 위원장

맨 마지막 대명삼장법수인데 수고스럽지만 ○ 위원님이 조사도 하셨으니 까 끝까지 맡아주시죠.

□ <대명삼장법수>

○ ○○○ 위원

이 자료는 열 책으로 된 것인데요. 대명삼장법수라고 해서 대장경의 있는 법수를 모아서 숫자를 순서 따라 배열하고 항목을 간략하게 해설한 일종의 불교사전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죠. 1690년에 지리산의 정혜사하고 몇 군데 사찰에서 분담을 해서 간행한 책입니다. 권수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번의 조사대상 본은 원래 간본을 1759년

에 전라도 내장산 벽송암에서 후쇄한 책임입니다. 30권 10책인데 결본이 일곱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다 유형문화재로 지정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청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 위원장

예. 혹시 다른 위원님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죠.

○ ○○○ 위원

조사자님들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 ○○○ 위원장

예. 그러면 조사자 의견대로 불가로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향후 일정 논의 중)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세요. 추석도 잘 보내시고요.

○ ○○○ 주무관

마무리하겠습니다.

(산회)